

탁아소·반찬공장 등 시설 많으나 가사와 노동의 이중부담 여전

남영진/한국일보 북한부 기자

북한의 평범한 시민들은 하루 3분해 8시간씩 노동, 휴식과 습, 수면을 하게 돼 있다.

이것은 가정주부도 마찬가지

북한여성의 경우 '남녀평등'·'여성해방'이라는 미명하에 동과 가사의 이중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사회주의여성관, 노동관에 오는 '여성의 혁명사업참여'·남자와 똑같은 8시간의 직장 생활을 하고 아직도 유교와 봉건 제에서 오는 남존여비에 의한 사의 부담을 함께 지니고 있다.

지난 73년 노동신문은 '남녀평등법' 반포27주년기념사설'에서 온 나라에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시설 등이 갖추어지고 안전·산후휴가제와 셋이상의 어린이들을 가진 여성들에 대한 시간노동제가 실시돼 모두가 마음놓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며 가공식품, 전기냉동기, 세탁기, 전기밥가마 등이 공급돼 수천년동안 여성들이 얹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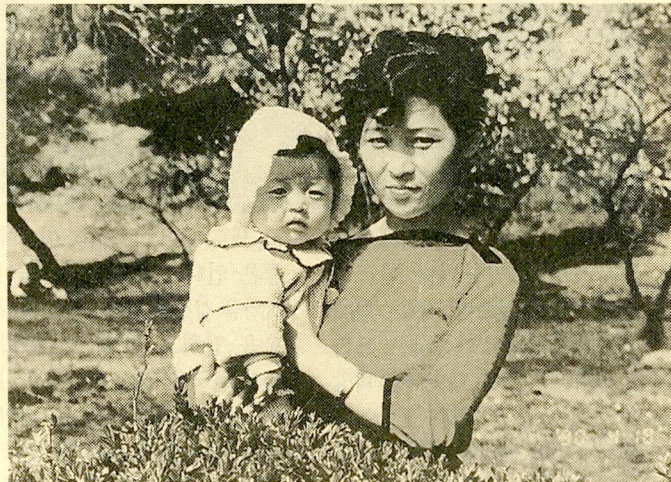
있던 부엌과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자찬했다.

그러나 지난 77년 평양을 다녀온 미국인 존·할리데이 씨는 "여자들은 거의 집을 떠나 온종일 일을 하면서도 가사와 양육의 책임까지 맡고 있다"고 적고 있다. 할리데이는 또한 협동농장 방문시 일행을 환영하는 술자리에서 여자들은 시종일관 심부름 하기에 바쁘고 잔치자리에 동석치 않았다고 쓰고 있다.

87년 일본인방문객도 호텔종업원들의 풀뿌리작업서 남자들은 일을 하지 않고 여자들만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올해 4월 미국인기자들이 본 지방에서의 부엌작업에서도 남자들은 그들에서 담배를 피고 주로 부녀자들이 열심히 일하더라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평양 등 대도시의 가정에서는 '여성이 우위'라는 주장도 있다.

지난 8월 범민족대회기간중 열흘간 북한을 다녀온 서독 킬데



남녀평등법이 반포되어 있는 북한이나 '남아선호사상'은 여전하다.

김윤수 교수는 '북한청년들은 10년간의 국방의무 때문에 27~28세에 대학을 가고 여성들은 23·24세에 대학을 졸업해 젊은 부부들은 여성쪽이 지적인 면에서 우위여서 자연스럽게 모계사회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교수는 이 모계사회에서 생기는 가정불화가 지금 북한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즈음 한달간 북한을

취재했던 이찬삼 중앙일보 시카고지국장이나 지난해 제3국을 통해 귀순했던 전 북한대학생 김모(33) 씨의 증언은 달랐다.

북한영화에는 아직도 며느리를 학대하는 시어머니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 아침에 길을 가다가 여자가 앞을 가로질러 가면 "채수없다"고 욕을 한다는 것.

북한주부들은 월~목요일에는 직장일을, 금요일은 가족들과 함께 '금요노동'을 토요일은

'토요학습'을 받아야 한다.

일요일에도 밀린 빨래를 하거나 가족들의 옷을 손수 만들어 입힌다.

북한여성들의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5개월 정도지만 대부분 직장상사들의 권유로 반납하고 2개월 정도를 쓴다고 한다.

북한여성들은 아직도 대가족제를 선호하는데 그것은 시부모들이 육아나 저녁식사준비 등을 대신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

북한주부들의 최대 소망은 우리와 같이 '가족들의 건강'이며 '자녀들이 선생님들로부터 칭찬 듣는 아이로 커 가는 것'이라고 한다.

북한여성들은 대부분 '남편'이란 말 대신에 '우리집가장'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한 가정에 두 자녀 갖기가 보편화돼 있으나 딸만 둘일 경우 아들을 낳기 위해 세번째 임신을 원한다는 '남아선호사상'도 남아 있다고 한다. 다만 북한에서 자랑하는 탁아소, 유치원이 많고 여성을 '부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세웠

다는 밥공장, 김치공장, 반찬공장이 많아 전통적인 요리들은 많이 간소화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것도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노동력을 사회로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북한전체노동인구의 48%까지 여성참여율이 높아졌다는 사실로도 증명된다.

최근 중국동포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아직도 농촌에서는 여성들이 속옷배급이 원활치 못해 이불호청으로 만들어 입고 있다고 한다. 북한 TV방송이 육류요리보다 '남새(채소)'를 이용한 요리'를 주로 방송하면서 주부들의 숨쉴 수를 부각하는 것도 생활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들이다.

북한 TV방송에서 '고철과 파지수집운동' 캠페인을 벌이는데 등장인물들이 머플러를 쓴 주부들뿐이었던 것도 여성들이 사회와 가정생활의 이중부담을 지고 있다는 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